

“제35대 총무원장 여법하게 선출해야 한다”

▣ 총무원장 스님 담화문 의미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불교는 안팎으로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하고, 불교적 지혜에 입각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30여 일 앞둔 지난 1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전 종도들을 향해 발표한 담화문의 한 대목이다. 이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긴장감과 결연함이 묻어났다. 이번 선거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내 불교공동체를 보호하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일반직 종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총집을 당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총무원장 스님의 담화문에는 무엇보다 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스스로도 공정선거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있다. 엄격하고 공평한 선거관리는 종단과 승가의 권위를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속의 교범이 되려면 세속보다 깨끗하면서 합리적인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총무원장 스님도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부처님이 밝혀주신 사부대중 공동체의 삶을

종단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도 모두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발발한 탁마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모든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은 엄정 중립의무를 지켜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과열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엄정중립
공정선거 실현 강력한 의지 표명
‘주지불교’ 빠져린 자기성찰 바탕
‘온전한 불교 공동체 회복’ 당부도**

혼탁선거는 반드시 화를 부르는 만큼,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 비구니 스님 등 모두가 공명선거 실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비불교적인 행위로 승가 본연의 화합을 깨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징계 받은 스님들과 불교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적폐정산’ 활동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비방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애중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외부 단체와 타종교인 등과 함께 연대해 외부를 향해 불교를 비판하는 행위는 불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뜻도 담겼다. 총무원장 스님도 “최근 종단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주장에 사실 관계의 오인 등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이번 선거가 잘 회향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노력을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둘러싼 환경은 무엇 하나 가볍지 않다”면서 빠져린 자기 성찰을 주문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 사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종단 구성원 개인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종의 범위에 고민이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을 교조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 불교’에 머물러 있다”며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위기”라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공동체 군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번 선거가 종원 중범의 질서 속에서 여법하게 치러져 불교공동체가 온전하게 가꾸어져야 한다는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1일 중앙총무기관 전 소임자들에게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이 발표된 확대총무간담회에는 총무원을 비롯해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총무기관 기관장과 부실장 스님, 선임 차임장 종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주 기자**

■ 교구본사별 교구총회 일정

교구	개회일시	개회장소
직할교구	9월2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영장
제2교구(용주사)	9월29일 오후2시	용주사 관음전
제3교구(신홍사)	9월28일 오후2시	신홍사 설법전
제4교구(월정사)	9월29일 오후2시	월정사 대법륜전
제5교구(법주사)	9월29일 오후2시	법주사 능인수련원 선불장
제6교구(마곡사)	9월27일 오후2시	마곡사 관음전
제7교구(수덕사)	9월27일 오후1시	수덕사 황하정루
제8교구(직지사)	9월30일 오후2시	직지사 설법전
제9교구(동화사)	10월1일 오후2시	동화사 설법전
제10교구(은혜사)	9월29일 오후2시	은혜사 도선당
제11교구(불국사)	9월29일 오후2시	불국사 무설전
제12교구(해인사)	9월30일 오후2시	해인사 보경당
제13교구(쌍계사)	9월28일 오후2시	쌍계사 교육관
제14교구(범어사)	9월30일 오후3시	범어사 휴휴정사
제15교구(통도사)	9월28일 오후2시	통도사 원통방
제16교구(고운사)	9월29일 오후2시	고운사 화엄문화박물관
제17교구(금산사)	9월27일 오후3시	금산사 포교당 수련사
제18교구(백양사)	9월29일 오후2시	백양사 교육관
제19교구(해인사)	9월27일 오후2시	화엄사 해원당
제21교구(송광사)	9월28일 오후2시	송광사 사자루
제22교구(대흥사)	9월29일 오후2시	대흥사 만월당
제23교구(관음사)	9월30일 오후2시	관음사 선센터
제24교구(선운사)	9월27일 오후1시	선운사 지장보궁
제25교구(봉선사)	9월27일 오후2시	봉선사 청풍루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각 교구총회 일정 ‘확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 일정을 확정했다.〈표〉 전국 교구본사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교구본사별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 한다.

교구총회는 본사 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 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에 대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방식은 당일 교구총회에 참석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교구총회는 대리참석이나 위임

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권은 ‘재임 중인 중앙총회의원과 법제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에게 주어진다. 다만 재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 록사설사암 장건주 및 운영권자, 본종 관장자 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 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 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 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 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이교도들·외부세력 종단간섭 지나치다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종단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어 ‘적폐정산’이라는 이름 아래 종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들이 종단 흔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 불교와 무관한 외부 시민사회단체, 타종교인들도 가세해 종단을 비방하고 적폐정산을 외치며 힘을 보태고 있다. 14일 오후4시 범불교대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종단 적폐정산과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불교와 무관한 외부 단체나 타종교인들이 대부분이다. 명진스님 제적 징계의 경우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신부 등 타종교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시민사회원로모임’은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명진스님을 두둔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함세웅·문규현 신부, 이해동 목사를 비롯해 개신교 집사인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가톨릭 신자인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타종교인들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하는 노동자 모임’ 등도 적폐정산과 종단 개혁 등을 주장하며 지나치게 종단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박노현 전 교육감은 보신각 집회에 참석해 “올해는 루터 종교 개혁 500년이 되는 해다. 명진스님과 함께 종교 개혁 이루자. 누가 빛이고 어둠인가. 자승 원장

**‘적폐정산’이라는 이름 아래
신부 목사 등 타종교인 가세
징계자들 ‘종단 흔들기’ 앞장
추혜선 의원…정치권도 개입**

인가, 명진스님인가”라고 선동적인 발언하기도 했다. 종단 적폐정산 요구 등은 자칫 종교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타종교인들이 이같은 발언을 일삼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명진스님이 조계사 인근에서 단식에 돌입하자 이정마·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특히 공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조계종의 여러 문제는 단순히

종교계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건강 염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문제에 지나치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적폐정산을 외치며 보신각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가 대부분이다. 단식에 돌입했던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직 시 관련 비위 등으로 제적 징계를 받았다. 강철스님은 사찰의 성보를 밀반출한 것이 발각돼 공권징지10년 징계를, 도정스님은 종단 비방과 승가위의 훼손 등으로 공권징지3년 징계를 받았다. 대안스님은 사회법 무단 제소로 제적됐으며, 각명스님 역시 사회법 무단 제소로 공권징지 8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됐다. 홍두표(법명 무승) 씨는 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직권 제적됐다.

14일 오후7시 서울 청계광장 소리탐 앞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한바탕’ 행사는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목사, 신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12일 현재) 알려졌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창립 42주년
130평 대형선방
운영 30년
교육은 인생을 바꿨네!

불교 유식(唯識) 강의

경·울·논 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의 논리학은 유식학입니다. 어려운 유식학을 알기쉽게 쑥쑥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8강을 실시하오니 인연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자	교육 내용
9월 21일(목)	별보(別報) : 사람마다 몸이 건강한것. 약한 것은 전생업력이 좌우한다.
9월 28일(목)	자업자득(自業自得) : 현생의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전생 자기 가 지은 업력 때문이다.
10월12일(목)	식별과 대상 : 마음은 식별하는 쪽이고 대상은 식별 되는 쪽이다
10월19일(목)	본래의 마음은 절대적이고 진실한 전리의 마음
10월26일(목)	집착하는 마음은 객관 대상을 취하는 마음이다.
11월 2일(목)	마음은 8식 : 의지와 의식 작용이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작용한다.
11월 9일(목)	의지는 7식 : 의식이 생각 작용하는 근본과 경험을 말한다.
11월 16일(목)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경계, 6식

※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은 아뢰야식안에 종자가 원인이 되고 과보가 되는 인과 속에서 전개된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역시 아뢰야식이 업력에 의지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 기 간 : 2017년 9월 21일(목) ~ 11월 16일(목)
→ 일 시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오후반 오후 7시 ~ 9시
→ 강 사 : 현담스님(L.A 유식강의 저자)
→ 장 소 :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4층)
→ 동 참 비 : 8회 총3만원 (유식교재 제공, 점심공양, 저녁간식 제공)



修禪會 종로선방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02-732-5960)

東軒堂 太玄 大宗師 涅槃 34週忌 追慕齋

東軒堂 太玄 大宗師 34週忌 追慕齋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門徒스님들께서는 無漏同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2561(2017)년 9월 23일(음력 8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화엄사 각황전
- 연락처 : 화엄사 종무소 ☎ 061) 783-7600

불기2561년(2017)년 9월

Ⓣ大韓佛教曹溪宗 華嚴寺 住持 德門 合掌
第19教區 本寺

